

사회적 응집력의 핵심으로서의 토착 사회적 연대와 연결: 에티오피아 곤다르시의 사례

초록

사회적 응집력에 관한 많은 학문적 연구와 담론은 주로 유럽 사회의 경험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기초는 유럽 사회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이는 사회와 공동체 간의 불평등이 존재함을 인정하며,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도구로서 사회적 응집력을 바라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응집력은 불평등을 줄이고 경제 성장과 안정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응집력은 일정 부분에서 도구적이고 실용적인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에티오피아는 풍부한 문화적 다양성과 역사적 유산을 가진 나라로, 사회적 응집력을 다른 시각에서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를 제공합니다. 연구 대상인 곤다르시에서는 이 개념이 공동체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비록 개인이 토착 사회적 연대에 속하지 않고도 사회적 삶을 영위할 수 있지만, 이들의 부재는 사회적 삶에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합니다.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 토론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이러한 토착 사회적 연대와 연결의 본질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응집력은 공동체 내에서 형성된 다양한 토착 연대와 연결에 본질적으로 뿌리내리고 있으며, 평등을 추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연대, 협력 및 신뢰를 촉진하며, 정보와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응집력에 기여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연대에 속하지 않고 사회적 삶을 영위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핵심 키워드: 사회적 자본, 사회적 응집력, 사회적 연대, 곤다르, 에티오피아

서론

‘사회적 자본’이라는 용어는 20세기 초에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보다 넓은 사회학적 담론의 일부로 자리잡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Gudmundsson & Mikiewicz, 2012). Robert Putnam은 사회적 자본을 “상호 이익을 위한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규범,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 조직의 특성”으로 정의했습니다 (Putnam, 1995:67). 자주 인용되는 정의는 Pierre Bourdieu의 정의로, 그는 사회적 자본을 “상호 친분이나 인정을 기반으로 한 보다 제도화된 관계 네트워크를 소유하는 것과 연결된 실제 또는 잠재적 자원의 총합”으로 정의했습니다 (Bourdieu, 1986: 248). 에티오피아 문화는 공동체의 가치와 강한 사회적 유대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드르(Idir), 마히베르(Mahiber), 센베테(Senbete), 이쿠브(Iqub)와 같은 여러 중요한 사회적 연대는 에티오피아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연대는 공동체 내에서 연대, 지원 및 문화 보존을 촉진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사회적 삶을 형성하고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연대는 개인들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개인은 이러

한 연대의 일원이 아니라면 고립되거나 “사회적 소외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Poluha(2004)는 개인의 삶이 그 주변의 이웃과 친구들에게 강하게 의존한다고 지적했으며, 개인은 마히베라위 누로(Mahiberawi nuro, 집단 생활)라는 사회적 삶을 벗어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종교 그룹, 연대 그룹, 장례 협회, 직장 그룹 등 여러 사회적 연대에 속함으로써 달성됩니다. 마찬가지로 Mequanent(1996)은 이드르(Idirs), 마히베르(Mahabers) 및 이쿠브(Iqubs)와 같은 비공식적인 사회적 제도가 에티오피아인들에게 공유된 가치, 전통 및 경험을 통해 사회적 세계를 창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Endalkachew(2018)은 오로모 사회 시스템에서 “가다(Gadaa)” 또는 연령 등급 시스템이 공동체 구성원 간의 협력, 연대 및 상호 의존을 촉진하는 사회 조직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많은 도덕적 및 법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으며, 불의, 사회적 악, 정치적 혼란을 금지하여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Hinew, 2012). 이 시스템은 사푸(Safuu, 윤리), 평등, 존중, 관용, 법과 질서 등의 가치를 통해 평화를 촉진하는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통합합니다 (Debisa, 2022). 이 시스템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단합, 지원 및 협력적 의사 결정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Teshager와 Aweke(2020)에 따르면, “우분투(Ubuntu)” 개념은 에티오피아에서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는 공동체 내에서 개인 간의 상호 연결성과 상호 의존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 공감, 연민, 협력 및 공동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에티오피아는 가족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부모와 자녀를 넘어 조부모, 이모, 삼촌, 사촌까지 포함됩니다 (Abebe, 2007). 따라서 이 확장된 가족 네트워크는 구성원 간의 사회적 생활 연결을 결정합니다. 그 결과, 이 가족 구조 내에서의 긴밀한 관계는 사회 내에서 연결을 구축하고, 사회적 네트워크 및 연대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에티오피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드르(Idir)”와 같은 사회적 연대가 단순히 장례를 위한 상호 지원 그룹의 역할을 넘어, 공동체 내에서 다시 한 번 집단 행동의 감각을 촉진하고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Ege, 2023).

역사적으로, 다양한 민족은 오랫동안 곤다르시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곤다르는 기독교인, 이슬람교도, 그리고 펠라샤스(Felashas), 암하라족(Amharas), 티그리냐족(Tigrians), 킴안츠(Qimants), 에리트레아인(Eritreans)과 같은 다양한 민족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Pankhurst, 1969). 곤다르시에서 주민들은 수많은 연대, 관계 및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사회적 삶을 영위합니다 (Endalew, 2020). 이러한 연대와 관계는 곤다르시의 가치, 규범, 전통, 사회적 응집력 및 공동체 복지의 핵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공동체의 일에 참여하고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촉진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연대와 관계는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곤다르시 공동체의 조직적인 일부분입니다. 이들은 개인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람들을 결집시키며, 상호 신뢰를 창출하고, 책임감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연대들이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응집력을 달성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여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 토론을 통해 수집된 주요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주제별 및 맥락적 질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되었습니다.

사회적 응집력과 사회적 자본 개념화

사회적 응집력(social cohesion) 개념은 19세기 산업화와 현대화에 따른 구조적 변화의 사회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고전 사회학 이론에서 유래되었습니다(Boucher and Samad, 2017).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 1893)은 사회적 응집력이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하며, 연대(solidarity)와 연결된 충성도가 두 가지 유형의 사회적 응집력을 구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Vertovec, 2007). 사회적 응집력의 개념은 명확히 내려진 정의가 없으며,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여러 가지 정의로 제시되었습니다. 첫째, 신뢰(trust)는 사회적 응집력을 개발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는 사람들 간의 연대감이 얼마나 형성되었는지를 나타냅니다(Delhey et al., 2018). 또한 사회적 응집력은 개인과 그룹들이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며, 신뢰와 연결을 구축하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Giardiello, 2014). 간단히 말해, 응집력 있는 사회는 사람들의 배경이 기회와 자원에 있어 평등하게 대우받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요약하자면, 사회적 응집력에 관한 문헌은 그 가치와 요소들에 대해 공통된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부 정의는 사회의 복지나 공정한 기회를 강조하는 경제적 결정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응집력의 생성 이론은 세대 간 규범, 가치 및 자원의 전수가 사회적 응집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이 이론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요소 외에도, 사회 구조, 대인 관계, 가족 및 지역 사회가 공동체 건강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Giardiello, 2014).

잉글하르트와 웰젤(2005)은 사회적 응집력을 경제적 조건과 현대화와 같은 다른 결과의 결과로 보고, 이는 사람들 간의 협력, 신뢰 및 자유화 목표의 추구를 이끈다고 설명합니다. 즉, 사회경제적으로 발전하는 사람들은 생존 수단을 확보하여 희소 자원을 두고 경쟁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잔마트(2011)는 경제적으로 더 발전한 사회들이 더 응집력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월킨슨과 피켓(2010)은 이러한 부의 격차가 불평등을 조장하며, 이는 사회적 계층 위한 물질적 경쟁을 만들어 개인과 지역 사회 간의 관계를 악화시킨다고 말합니다.

사회 인류학과 사회학 연구에서(Kearns and Forrest, 2000; Berger-Schmitt, 2002), 사회적 응집력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동일하게 정의하거나 두 개념을 동의어로 사용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엇과 유수프(2006:22)는 사회적 자본을 "시스템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정의합니다. 다양한 집단 간의 합의와 조화로운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에서,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응집력을 달성하기 위한 실용적인 도구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젠슨과 보베이스(2002:14)는 "사회적 응집력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려 할 때, 종종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성 요소로 취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적 자본은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자본의 차원(dimension)이라고도 불립니다. 차원은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의미합니다. 나하피에트와 고샬(1998)은 사회적 자본의 차원 또는 구성 요소에 대한 기초를 마련한 인물들로, 이들은 사회적 자본 개념에

대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구조적 차원은 사람들이나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의미하며, 이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존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람들과 그룹들이 정보, 지식 및 상호 이익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Ansari, Munir, and Gregg, 2012). 이는 개인들이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는 네트워크 관계,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연결망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자본의 인지적 차원은 사람들이나 그룹들이 상호 이해와 해석을 위한 의미 체계와 체계를 공유하는 자원들을 의미합니다(Nahapiet and Ghoshal, 1998). 이는 개인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유된 언어와 코드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Gooderham, 2007). 사회적 자본의 관계적 차원은 사람들이 관계망 속에서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방식을 나타냅니다(Nahapiet and Ghoshal, 1998). 이 차원은 우정, 신뢰, 존경 및 의무와 같은 대인 관계의 본질과 특성을 보여줍니다(Gooderham, 2007).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응집력이 지역 사회의 복지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Kein(2013), Jensen(2010), 및 Berger-Schmitt(2002)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을 개별 수준에서 사회적 역학을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응집력은 상호 연관될 수 있으며,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응집력의 한 요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간결하게 말하자면, 사회적 응집력과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서로 얽혀 있으며, 보통 서로를 바탕으로 발전합니다. 구성원 간의 연대감, 공통의 이념 및 집단 간의 수용감은 사회적 응집력 관점에서 강한 친밀감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사회적 응집력이 최고 수준에 이를 때, 사람들 간의 신뢰, 상호성 및 협력이 증진되어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 규범과 기준을 마련하여 사회적 자본의 필수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의 경우, 그것은 관계를 통해 창출된 자원과 보상이며, 사회적 네트워크와 지역 사회 내 사람들 간의 신뢰 및 사회적 규범이 공동 작업이나 집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와 지역 사회의 유대감은 상호 작용, 커뮤니케이션 및 공동체 의식을 촉진시켜 사회적 고립, 배제 및 불평등을 줄이고, 결속을 강화합니다. 따라서 특정 사회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자본을 분석하고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공동체가 어떻게 결속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사회적 응집력을 살펴보고, 사회적 응집력의 중요한 차원으로 사회적 자본을 다룹니다. 이 논문은 곤다르 시의 지역 사회에서 사회적 연대, 연결 및 네트워크의 본질과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합니다.

사회적 응집력 개념의 난점

사회적 응집력은 사람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동등하게 대우받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개념은 잠재적인 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사회적 응집력의 다차원적 특성은 이 현상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사회적 응집력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차원으로 정의되어 왔습니다. 첫째로, 베르거-슈미

트와 놀(Berger-Schmitt and Noll, 2000)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격차를 줄이고, 차별, 불평등, 편견을 감소시키는 것을 사회적 응집력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합니다. 비슷하게, 맥스웰(Maxwell, 1996)은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불평등 격차를 줄이는 것을 사회적 응집성의 주요 특징으로 간주하며, 이는 사회적 응집성을 정의하는 중요한 속성이라고 봅니다.

헬스와 스톤(Hulse and Stone, 2007)에 따르면, 사회적 응집력은 사회 네트워크와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더 나아가 젠슨(Jenson, 1998)은 참여, 정당성, 포용과 같은 가치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얀센 외(Jansen et al., 2006)는 활기찬 시민문화, 사회 질서, 사회적 연대, 사회적 자본, 그리고 소속감이 사회적 응집력의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차원들은 각기 다른 사회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해석됩니다. 사회적 응집력은 다양한 사회가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우선시하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발전 정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경제적 평등, 문화적 통합, 사회적 신뢰 등 사회적 응집력의 여러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응집력을 이해하고 촉진하기 위한 맥락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원 중 일부는 특정 전략과 개입을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시도는 복잡하고 모호할 수 있습니다.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요소를 무시하면 진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 응집 정책에 대해 사람들이 합의하지 못하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사회적 응집력의 다양한 측면을 포착하기 위해 여러 차원과 지수를 개발했지만, 적절한 지표, 맥락에 민감한 문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응집력 요소들에 대해 여전히 이견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학자들은 제도적 구조, 역사적 유산, 문화적 규범, 경제적 조건, 정치적 역학과 같은 요인이 다른 맥락에서 사회적 응집력의 역학을 형성한다고 인정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복잡합니다. 이 복잡성은 원인과 결과 관계를 이해하고 개입 방법을 찾기 어렵게 만들어 또 다른 난점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응집력 문제와 이점을 적절히 다루기 위해 맥락에 맞춘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적 응집력에 관한 많은 문헌은 유럽 중심적인 인식론적 틀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본 논문에서 논의된 것들을 포함하여 잘 확립된 학술 연구와 담론은 대개 유럽 국가에서 나왔으며, 주로 유럽 사회의 경험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들은 종종 유럽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경험에 의해 동기 부여를 받아 사회적 응집력의 정의와 측정 도구를 개발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사회적 응집력의 개념화와 측정 방식을 본질적으로 형성합니다. 사회적 응집력은 종종 안정성을 개발하고 보다 견고한 경제를 육성하는 방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회적 응집력은 공동체와 사회 구성원 간의 기존 격차를 연결하는 데 필수적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더 나은 전반적 복지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원이 불균등하게 분배되고 접근 가능한 기회가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생활 수준, 필수 서비스의 가용성, 사회적 이동성을 위한 경로에서 사회적 차이가 증가하여 사회적 불평등, 사회적 긴장, 좌절감, 그리고 전반적인 복지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사회적 응집력을 촉진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달리 말해, 정의, 평등,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사람들 간의 연대감, 신뢰, 협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감소, 사회적 안정, 사회경제적 이동성과 같은 실용적인 결과가 자주 강조됩니다. 이러한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정책과 개입이 촉진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응집력은 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정치적 발전에 따라 변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사회적 응집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지속적인 도전을 만듭니다. 하지만 사회적 응집력을 촉진하는 정책의 효율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 유산, 사회 정치적, 경제적 특성 등 주변 문제들도 많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외의 여러 지역에서도 각자의 환경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응집력에 대한 관점을 제시한 연구자들이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연구 접근법 및 설계

이 연구는 주로 질적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는 인터뷰와 포커스 집단 토론(FGD)을 통해 수집되었습니다. 사회적 연합의 지도자들, 비서들, 고위 회원들, 그리고 존경받는 노인들이 응답자로 참여했습니다. 총 15회의 인터뷰와 1회의 포커스 그룹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또한 사회적 연합 및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 사회적 응집력과 관련된 2차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했습니다.

곤다르 시의 사회적 응집력의 기초 탐구

곤다르시 사람들은 세대를 거쳐 전달된 고유한 전통, 규범, 가치 및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곤다르시에서 사회적 응집력이 오랫동안 기본적으로 지탱되어 온 주요 사회적 연합, 네트워크 및 관계들입니다. 이들은 곤다르시 사회적 응집력의 기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 토론에서 탐구되었습니다.

센베티(Senbete): 센베티는 50명에서 80명까지의 정통 기독교 신자들로 구성된 연합으로, 매주 정기적인 모임이 열리며, 신부의 축복으로 시작됩니다. 이 연합의 목적은 회원들의 삶을 축복하고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센베티의 회원들은 연합을 운영하기 위해 매달 정기적으로 기

부금을 내야 합니다. 모은 돈은 의자, 테이블, 그릇, 텐트, 부스, 배럴 등 다양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시설들은 연합의 의식에 사용되며, 회원들은 개인적 또는 가족적인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가 있을 때도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들은 이 물품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반납해야 합니다. 모든 회원은 규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원들이 모임에서 만날 때마다 개인적이고 가족적인 문제를 논의하며, 누가 아프거나 슬픔을 겪고 있는지, 또는 누가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픈 회원은 집이나 병원으로 방문하며, 슬픔에 빠진 회원은 위로를 받습니다. 모인 기부금은 필요로 하는 회원에게 전달되고, 회원들의 장례식도 실행됩니다. 요약하면, 센베트는 회원들의 사회적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 유지할 수 있는 연합으로, 인종 배경에 상관없이 회원들을 지원합니다.

마히베르(Mahiber): 마히베르는 정통 기독교 신자들로 구성된 연합으로, 매월 정기적인 모임이 이루어지며, 모임은 무작위로 선택된 회원의 집에서 개최됩니다. 마히베르는 기독교의 특정 성인의 기념일을 기준으로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마히베르의 월례 모임이 매월 21일에 열린다면 "마리암 마히베르"(성모 마리아 연합)라고 불리고, 매월 19일에 열린다면 "가브리엘 마히베르"(성 가브리엘 연합)라고 불립니다. 곤다르시의 마히베르 연합은 종종 "여성 마히베르", "남성 마히베르" 그리고 "예가라 마히베르" 등의 형태를 가집니다. 각 모임이 회원의 집에서 열릴 때, 해당 회원은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여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회원들이 모임 때는 서로의 안녕과 안전에 대해 묻고, 서로 겪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며, 주변 상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합니다. 회원들은 물질적, 재정적, 아이디어, 노동 측면에서 서로를 돕습니다. 마히베르의 주요 목적은 공동체 생활을 보장하고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아드르세그(Adrshegn): 아드르세그는 정통 기독교 신자들에 의해 매년 17일 동안 기념되는 독특한 사회적 의식입니다. 보통 "아드르세그" 그룹은 한 마을의 주민들, 이웃들, 친척들, 가족들 및 친구들로 구성됩니다. 이 그룹은 에티오피아 달력에서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의 16일 금식 기간(필세타 숨)을 기념하기 위해 형성됩니다. 아드르세그라는 이름은 성모 마리아에게 건강하게 금식 기간을 지나도록 기도하고 소원을 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아드르세그 그룹의 회원들은 매일 저녁 6시에 모여 금식 음식을 함께 먹으며 기념합니다. 회원들은 모두 동일한 금액을 기부하거나 현물로 기여해야 합니다. 금식 기간이 끝날 때까지 회원들은 매일 모여 서로의 안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금식 기간의 마지막 날, 모든 회원은 "시렛"을 작성하여 다음 해를 위한 기부 약속을 기록합니다. 시렛은 이전 해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믿는 회원들이 차기 금식 기간에 기부할 금액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아드르세그 연합은 회원들 간의 연결, 유대 및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벨리주(Abelij): 아벨리주는 한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주로 자신의 아버지)을 찾아가 자신을 아들로 삼아 달라고 요청하는 관계 형성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이를 통해 그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조언, 해결책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이 많은 사람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그는 꿀을 손가락으로 긁어 약속을 하며, 이에 따라 인위적인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형성됩니다.

예말리주(Yemarij): 예말리주는 아벨리주와 유사한 형태로, 한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아들로 삼아 달라고 요청하는 관계입니다. 이를 통해 그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조언, 해결책 및 지원을 받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이를 받아들이면, 그는 손가락으로 꿀을 긁어 약속을 하며, 이에 따라 인위적인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형성됩니다.

평등의 중심성: 운영 방식으로서의 평등

평등의 중심성은 모든 협회와 사회적 네트워크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평등은 이러한 조직들의 기초가 되며, 모든 회원에게 공정함, 정의 및 권한 부여를 보장합니다. 이들 협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평등을 우선시하며, 커뮤니티 내에서 사회적 응집력과 포용적 발전을 촉진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평등의 중심성을 나타내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이들은 포용적인 회원 구조를 보여줍니다. 한 인터뷰 대상자(KI1)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센베테’와 ‘마히베르’ 협회는 의사, 교사, 시 행정관, 판사, 은행 관리자, 투자자, 노동자, 퇴직자를 회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회원은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

특히, ‘마히베르’, ‘센베테’, ‘아드르시겐’은 포용적인 회원 구조를 만들고, 모든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동등하게 대표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들 협회는 인종, 성별, 교육 수준 또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정교회 신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대부분의 커뮤니티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들 협회는 근본적으로 평등을 촉진합니다. 예를 들어, ‘마히베르’와 ‘센베테’는 모든 회원에게 평등한 투표권을 부여하여 민주적인 원칙을 준수합니다. 한 FGD 참여자(FGD1)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센베테’와 ‘마히베르’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모든 회원은 어떤 계획, 방향, 목표 또는 활동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할 자유가 있습니다. 회장, 사무국장, 재무 담당자의 선출도 어떤 회원이라도 제안할 수 있으며, 그 제안은 회원들의 다수 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의 모든 결정은 전적으로 투표에 의존합니다.”

이는 각 회원이 협회의 방향, 정책 및 활동을 결정하는 데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목소리가 동일하게 존중받도록 함으로써, 이들 협회는 소속감과 공동 책임감을 고취시키며, 회원들 간의 사회적 응집력과 협력을 촉진합니다. 또한, 평등의 핵심 가치는 자원 분배 전략에서도 나타납니다. 한 인터뷰 대상자(KI2)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센베테’는 텐트, 의자, 테이블, 캐빈, 식기, 컵, 부스 등 다양한 기구와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두의 것이며 평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제공됩니다. 회원들이 어떤 행사나 축제에서 이 시설을 사용해야 할 때는 책임감과 신뢰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누군가 가족을 잃으면, 사망자와의 관계 유형에 따라 일정 금액이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협회가 자원(재정 지원 및 물자 등)을 필요와 필요성에 따라 분배하고, 특정 개인이나 그룹을 선호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자원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마히베르'와 '센베테'는 커뮤니티 모든 구성원의 권한 부여와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 부여는 이들 협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한 토론 참여자는 "우리 '마히베르' 협회의 사무국장과 '센베테' 협회의 재무 담당자는 여성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들 협회가 여성들이 모든 수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리더십 위치에서도 활동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여성이 의견을 표현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기여하며,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성별 규범에 도전하고 여성의 권한을 강화하는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이들 협회는 커뮤니티에서 평등과 포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포용적인 회원, 평등한 대표성, 자원 배분 및 성평등에 집중함으로써, 이들 조직은 모든 회원이 번영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협회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공동의 목표와 열망을 추구하는 데 있어, 회복력 있고, 조화롭고, 공정하며, 단결된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협회 및 연결망의 기여와 사회적 응집력과의 관계

위의 협회와 연결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이점 중 하나는 사회적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 '센베테'와 '마히베르'는 회원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슬픔을 겪는 시기에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을 모아 감정적 지원과 소속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 내에서 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한 인터뷰이(KI3)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센베테'는 우리의 사회 보험 회사와 같습니다. 서로 돕기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회원들이 가장 힘든 시기에 감정적, 물리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모든 회원은 개별 사회 지원 활동에 기여하고 참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센베테'는 자원을 모아 기금을 만들고, 회원들은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며 이 수익은 필요한 회원들에게 즉시 지원됩니다. 따라서 '센베테' 협회의 회원들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사회적 지원 활동에 기여하고 혜택을 누립니다. 이 지원에는 의료비, 장례비용 또는 기타 긴급 재정적 요구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센베테'는 주로 장례식에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FGD 토론 참가자들은 "우리 '센베테'가 사회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은 애도와 장례식입니다. 또한, 모든 회원은 '센베테' 의식에 자신의 노동을 기여해야 합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센베테' 회원들은 장례 비용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고인의 존엄하고 존경받는 장례를 보장합니다. 이 역할에는 장례 준비, 교통수단 및 기타 필수 준비를 돕는 일이 포함됩니다. 특히, 회원들은 슬픔에 빠진 가족에게 감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다양한 장례 준비를 돕습니다. 이에 따라 '센베테'는 결혼식, 세례식, 장례식 등 가족 의식에서 필요한 의식 장비를 제공합니다. 마히베르도 사망, 장례식 준비 및 관련 비용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한 인터뷰이가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마히베르'는 회원들이 환자에게 방문할 것을 의무화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협회의 맞춤형 가치입니다. 그러나 사망 시에는 모든 회원이 애도하는 회원에게 지

원을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이들 협회와 연결망에서는 환자 회원이 집이나 병원에서 다른 회원들로부터 방문을 받으며, 슬픔에 빠진 회원에게는 위로와 조문이 전달되고, 회원들로부터 모인 금액은 필요한 회원에게 전달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례식에서 '센베트'와 '마히베르' 회원들이 고인이나 가족이 사망했을 때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슬픔에 빠진 개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식이나 아기 세례식에서는 의식 장비들이 회원들에게 제공됩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협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사회에 사회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기여는 연대, 협력 및 신뢰 강화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협회, 관계 및 네트워크는 단순한 사회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넘어서, 지역 사회 내에서 연대와 협력, 신뢰의 정신을 증진시킵니다. 한 인터뷰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센베트' 협회와 '마히베르' 협회에는 정기적이고 엄격한 회의가 있습니다. 특히 '센베트'에서는 정기적인 주간 회의가 열립니다. 결석하면 벌금이 부과되며, 회의에서 협회와 회원들의 복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 회의를 통해 회원들의 복지 상태를 알게 되며, 지원이 필요한 회원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제공할 지원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이 협회들이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공동 책임감을 증진시키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 협회들은 주로 개인과 가족이 어려운 시기에 안전망 역할을 하여, 재정적 또는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혼자 두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아벨리'와 '예말리'와 같은 관계도 연대, 협력 및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관계에서 두 번째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문제를 다룰 때 상담과 감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한 인터뷰이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아벨리'에게 두 번째 아버지로서, 그의 복지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의 진짜 부모 외에도 저는 그에게 조언을 하고 제 경험을 나누며 친척들을 소개해 줍니다."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약속된 아버지는 약속된 자녀를 대신해 책임을 지고,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연장자나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약속된 아버지는 자녀에게 아내를 찾아 주거나 직업을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지위를 제공하는 책임도 집니다. '센베트', '이쿱', '마히베르', '아드르세그'에서의 정기적이고 빈번한 모임과 모임은 사람들을 상호작용하고 경험을 공유할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사람들이 공동의 관심사와 가치, 믿음으로 결속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이들은 강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어려운 시기에는 서로 감정적으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협회와 네트워크는 사회적이고 감정적인 지원 네트워크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들 협회는 문화적 및 사회적 보존에 기여합니다. '센베트', '마히베르', '아드르세그', '아벨리'와 같은 협회는 문화적 전통과 관습을 보존하고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문화적 가치, 규범 및 관습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하는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마히베르', '아드르세그'와 '센베트'는 문화 공연, 축제 또는 종교 의식을 조직하여 지역 사회에서 문화적 정체성과 유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센베트', '마히베르', '이쿱' 및 '아드르세그'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은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강화합니다.

세 번째 기여는 정보와 지식 공유입니다. '마히베르', '센베트', '이쿱', '아드르세그'와 같은 협회 및 '아벨리'와 '예말리'와 같은 관계는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고 기술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

토론자가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우리 '센베트', '아드르세그' 및 '마히베르' 협회는 교사, 판사, 의사, 관리자, 회장 및 기타 기술자 등 다양한 회원을 포괄하므로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 일부 회원들은 병이 나면 의사 회원들에게 전화하여 어떤 약을 먹어야 하는지 묻거나, 우리 지역 사회나 도시에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정보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공유됩니다. 또한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나눕니다."

따라서 지역 사회 내에서 정보가 순환됩니다. 이 외에도, 회원들은 서로의 전문 기술, 전통적인 관행 및 혁신적인 접근 방법을 배우며, 이를 통해 전통 의학, 농업, 건축, 공예, 기술 및 기타 지역 지식 분야에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이들 협회에서 회장, 재무 담당자 또는 비서 역할을 맡으면 재정 및 관리 기술을 배우고, 재정과 비즈니스 문제를 관리하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이는 그들의 개인적 및 직업적 발전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협회는 세대 간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장소로 기능합니다. 또한, '아드르세그', '센베트', '마히베르'를 통해 풍습, 의식, 춤, 이야기 등 문화적 요소들이 전달되며, 이는 지역 사회의 전통을 보존하고 지속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결론

사회 내에서 사람들 간의 통합과 단합을 촉진하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의 기초가 바로 사회적 응집력입니다. 이는 사람들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이끌어내는 사회적 유대감을 탐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에는 난점이 존재함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회적 응집력의 측정 문제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에는 여러 차원이 존재할 수 있으며, 연구자들 사이에서 상이한 관점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응집력은 학자들에 의해 다르게 이해되며, 이는 연구 결과와 권고 사항의 차이를 초래합니다. 이는 사회적 응집력의 해석과 적용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응집력은 유럽 사회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유로중심적인 인식론적 틀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유럽적인 방식으로의 이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문화적 경험과 전통을 대표하는 다른 문화적, 지역적 관점을 채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에티오피아는 회복력 있는 문화, 포용성, 그리고 소수 민족 공동체의 권한 부여를 사회적 응집력의 실현 가능한 정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사회적 자본은 에티오피아 사회의 문화적 신념과 관습에 매우 중요합니다.

곤다르 지역 사회의 사회적 응집력 개념은 그들의 문화적 가치와 신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풍부한 역사적 문화 유산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민족들이 결혼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응집력은 '센베트', '마히베르', '아드르세그', '아벨리', '예말리'와 같은 사회적 협회와 연결망을 통해 크게 촉진되었습니다. 개인이 이러한 협회의 일원이 되지 않고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협회와 연결망은 지역 사회를 강화하고 상호작용, 신뢰, 집단적 책임감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록 사람들은 비사회적 협회 회원으로 사회적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이는 사회적, 문화적, 지역 사회적 관계의 범위와 깊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곤다르에서 이러한 협회에 가입함으로써 사회적 지원과 지역

사회 참여의 기회가 열리고, 개인의 사회적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들 협회는 회원 모집과 운영에서 평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평등한 회원 자격, 동일한 권리와 의무,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우선시합니다. 또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그룹 간 연대감을 형성하며, 정보와 지식, 경제적 지원을 공유합니다. 이들은 상호 의존, 연민, 그리고 공유된 인간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협회와 연결망은 포용적이고 공정하며 응집력 있는 지역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 응집력이 공동체의 문화적 가치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으며, 공동체가 개인과 지역 사회 구성원 간의 강한 관계, 연대, 상호 지원을 통해 촉진된 사회적 응집력을 인식하게 됩니다.

참고문헌

Abebe, T., & Aase, A. (2007). Children, AIDS and the politics of orphan care in Ethiopia: The extended family revisited. *Social science & medicine*, 64(10), 2058-2069.

Alene, E. T. (2021). The Effect of Urban Redevelopment Induced Displacement and Resettlement on Social Capital in Ethiopia.

Ali, T., & Shishigu, A. (2020). Implications of ubuntu/synergy for the education system of Ethiopia. *Education Research International*, 2020, 1-11.

Ansari, S., Munir, K., & Gregg, T. (2012). Impact at the 'bottom of the pyramid':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capability development and community empowerment.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49(4), 813-842.

Berger-Schmitt, R. (2002). Considering social cohesion in quality of life assessments: Concept and measurement. *Social indicators research*, 58(1-3), 403-428.

Boucher, G., & Samad, Y. (2017). Introduction: social cohesion and social change in Europe. In *Social Cohesion and Social Change in Europe* (pp. 11-28). Routledge.

Richardson, J. G. (1986).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o Title*).

Debisa, N. G. (2022). Building peace by peaceful approach: The role of Oromo Gadaa system in peace-building. *Cogent Social Sciences*, 8(1), 2023254.

Delhey, J., Boehnke, K., Dragolov, G., Ignácz, Z. S., Larsen, M., Lorenz, J., & Koch, M. (2018). Social cohesion and its correlates: A comparison of Western and Asian societies. *Comparative Sociology*, 17(3-4), 426-455.

Duressa, E. L. (2018). Oromo Indigenous Philosophy (Gadaa System): The Case of 74 th Gujii Oromo Gadaa Power Transition. *Historical Research Letter*, 45.

Ege, S. (2023). Creating community: Burials, cooperation and exclusion in the Amhara eder (iddir). *History and Anthropology*, 1-21.

Elliott, S., & Yusuf, I. (2014). 'Yes, we can; but together': social capital and refugee resettlement. *Kotuitui: New Zealand Journal of Social Sciences Online*, 9(2), 101-110.

Giardiello, M. (2014). The generative theory of social cohesion and civic integration. *European Scientific Journal*.
Gooderham, P. N. (2007). Enhancing knowledge transfer in multinational corporations: a dynamic capabilities driven model.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 practice*, 5, 34-43.

Guðmundsson, G., & Mikiewicz, P. (2012). The concept of social capital and its usage in educational studies.

Hinew, D. (2012). History of Oromo social organization: Gadaa grades based roles and responsibilities. *Science, technology and arts research Journal*, 1(3), 88-96.

Hulse, K., & Stone, W. (2007). Social cohesion, social capital and social exclusion: A cross cultural comparison. *Policy studies*, 28(2), 109-128.

Janmaat, J. G. (2011). Social cohesion as a real-life phenomenon: Assessing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universalist and particularist perspectiv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0, 61-83.

Jansen, T., Chioncel, N., & Dekkers, H. (2006). Social cohesion and integration: Learning active citizenship.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7(02), 189-205.

Jenson, J. (1998). *Mapping social cohesion: The state of Canadian research* (Vol. 103). Ottawa: Canadian policy research networks.

Jenson, J. (2010). *Defining and measuring social cohesion* (No. 1). Commonwealth Secretariat.

Kearns, A., & Forrest, R. (2000). Social cohesion and multilevel urban governance. *Urban studies*, 37(5-6), 995-1017.

Klein, C. (2013). Social capital or social cohesion: What matters for subjective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0, 891-911.

Maxwell, J. (1996). *Social dimensions of economic growth*.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Alberta.

Mequanent, G. (1996). The Role of Informal Organizations in Resettlement Adjustment Process: A Case Study of "Iqubs", "Idirs" and "Mahabers" in the Ethiopian Community in Toronto. *Refuge: Canada's Journal on Refugees/Refuge: Revue canadienne sur les réfugiés*, 15(3), 30-38.

Nahapiet, J., & Ghoshal, S. (1998). Social capital, intellectual capital, and the organizational advantag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2), 242-266.

Pankhurst, R. (1969). A Preliminary History of Ethiopian Measures, Weights, and Values (Part 1). *Journal of Ethiopian Studies*, 7(1), 31-54.

Pickett, K., & Wilkinson, R. (2010). *The spirit level: Why equality is better for everyone*. Penguin UK.

Poluha, E. (2004). *The power of continuity: Ethiopia through the eyes of its children*. Nordic Africa Institute.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In *Culture and politics: A reader* (pp. 223-234). New York: Palgrave Macmillan US.

Vertovec, S. (2007). New complexities of cohesion in Britain: Super-diversity, transnationalism and civil-integration.

Welzel, C., Inglehart, R. and Deutsch, F., 2005. Social capital, voluntary associations and collective action: which aspects of social capital have the greatest 'civic' payoff?. *Journal of civil society*, 1(2), pp.121-146.